

# 사랑분별 끊어진 곳에 '무심' 있다

## 문답으로 풀어본 禪 ㉞

**문** 유소독의 관념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선근공덕을 쌓아나가지 않으면 인덕원만한 부처는 되지 못할 것 아닌가.

**답** 학문적으로 말하면 일단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근공덕을 쌓아 부처가 되기를 원한다면 상대이승지검이라고 하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자지인심 견성성불의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본래 태어난 그대로가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다. 많은 수행을 하고, 수행공덕을 쌓은 후에 비로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 그러면 작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선근 공덕을 쌓아두고 귀찮게 생각해야 하는지.

**답** 다른 사람과 증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때가 고된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면, 옷이 없어 추위에 떨고있는 사람을 위해 의복을 보시한다면, 병든 환자를 간호해 준다거나, 역시 선근 공덕을 쌓아야 하겠지만, 그러한 행위를 결코 공덕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하거나, 어떤 보수를 구한다거나 달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선수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심이나 구하는 것이 없다. 유소독의 수행이다. 선수행자는 언제라도 무심이기 때문이다.

**문** 무심에는 원래부터 미혹이나 깨달음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견성했다든가 깨달음을 체득했다든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답** 사물에 대한 일체의 대립적인 사고(思考) 방법을 약지약견(惡知惡見)이라고 한다. 그러한 사람분별이 완전히 다 없어진 그 곳을 무심이라고 말한다. 무심은 망심의 번뇌가 없는 근원적인 본래성을 말한다.

원래 수행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부처를 이루리라' 하는 등의 바람도 갖는 일이 없게 된다. 자기가 미혹한 상태에 있다 라고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깨닫고 싶다는 원(願)이나 소원을 갖는 일도 없다. 세간적인 인기를 많이 얻고 싶다는 등의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인기가 있어도, 좋은 평가를 받을지라도 기뻐하는 일도 없다.

한 생각의 번뇌도 일어나지 않기에, 미의 감정에 끌리는 일없이 무심하며,

선악이나 미추 등의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이 없다. 남을 미워하거나 귀여워하는 차별심의 감정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자기와 타인과의 분별도 차별도 없고,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구별하여 확실히 나누는 일도 없다.

**문** (육조단경)에 '一切萬法 都莫思量' 이라고 말하고 있다. 총이라든가, 똌이라든가, 혹은 손해다 이익이다 라든가 하는 것을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선악을 한꺼번에 생각하지 않는 것은 결국 선악에 대한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근원적인 본래성의 집으로 되돌아 가는 일이다.

즉 차별심 분별심이 떨어져서 않고, 일체를 한꺼번에 생각(思量)하지 않는 무심의 입장을 말한다.

이러한 사람을 무심 도인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지극한 대도(大道)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립과 분별의 세계에만 살고 있는 범부나,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얻으려고 허둥대며, 번뇌를 끊고 보리를 얻고자, 부질없이 노력하고 있는 소승 수행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문** 경전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 만선인행(萬善萬行)의 공덕을 쌓라고 있다. 그 정도로 무심이라는 것이 소

문(色受想行識)의 가호함인 우리들의 육체인 것이다. 공이란 번뇌 보리가 나오는 본원의 자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즉 마음을 말한다. 육체는 형체가 있고 색깔이 있기 때문에 색이라고 이름 붙이고, 마음은 형체도 색깔도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일체의 인생문제는 이 색과 공, 즉 육체와 정신, 물질과 마음, 객관과 주관 이 두가지 외에 달리 설할 것이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 이 공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무심의 대도인 것이다. 경전에 공이 설해져 있는 것은 무심이 설해져 있는 것이다.

**문** 마음이 공이라고 한다면, 지수화풍 사대의 가호함인 육체는 미혹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본래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답** 육체나 정신이나 모두 본래 미혹함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하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잠정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진실로 공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그러한 것을 향해서 미혹이다, 깨달음이다, 신이다, 약이다 라는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문** 대승의 보살들은 모두 무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가.

**답** 불교의 학문상으로 말해 볼 때 보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 묘각(十德, 十住, 十行, 十回向, 十地, 等覺, 妙覺)이라는 52위의 단계로 거쳐 일체의 모든 미혹과 업장을



○번뇌 선악 등 차별심이 떨어져서 않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 마음이 공한 사물을 깨닫는 것이 무심의 대도이다.

중고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답** 불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사의하여 사람분별을 벗어난 곳에 있다. <법구경>에도 '나의 법은 묘하여 생각으로는 (구하기) 어렵다' 라고 말하고, 또 '이 법은 사람분별로는 능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하고 있다.

**문** 우리들의 이 현실의 육체는 과거의 망념을 원인으로 하고, 양친의 만남의 인연으로 하여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비록 견성을 했을지라도 신통공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진실로 무심의 경지를 알고, 육체의 경계에 있으면서 육체에 붙들지 않고, 망상 그 속에 있으면서 망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신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본의 큰 지혜에 통달하고 자재를 얻을 지혜와 좁은 소견의 신통을 욕심낸다면 그것은 이미 불제자가 아니며 천마외도의 무리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여우나 너구리라도 약간의 신통 변화는 할 줄 안다. 그렇다고해서 과연 여우나 너구리가 존귀한 존재일까? 그와같은 눈앞에 보이는 작용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만 무심의 대도를 수행하여 삼대 아승지계를 한 순간에 풀어 날려버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곧바로 견성 성불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는 것이다. 그러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불문 가사의 법문은 어떠한 지혜를 직

중한 것이라면 왜 좀 더 무심의 공덕을 적극적으로 쌓지 않고 있는가.

**답** 태어나면서부터 깨달고 계시는 보살님들은 설하지 않아도 이미 벌써 불법을 잘 알고 계신다. 또 범부나 성문 연각처럼 알음알이·분별이 떨어져 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불법을 설한다고 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설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구경>에도 '無解人中 莫說此經(解慧가 없는 인간들에게 이 경을 설해서는 안된다)' 라고 경계하고 있다.

불교의 학문상에서 팔만사천의 법문을 설하고 있는데 그 근원을 자세히 찾아보면, 색과 공의 이법(二法)으로 돌아간다고 하겠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들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사대(地水火風) 오

소멸하고 끊어버리고, 비로소 불과(佛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혹은 번뇌장과 소지장의 두 종류가 있는데, 번뇌장을 다 없앤 보살이라 할지라도 또한 소지장이 남아 있는 한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이다. 십지의 수행을 쌓은 보살일지라도 더욱 더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욕망(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분의 불성에는 개입되지 못한 것이다. 50위를 거쳐 51위의 등각의 지위를 얻었을 때 비로소 이 무심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되는 것이다.

**문** 십지의 수행을 성취한 보살들이 라고 할지라도 무심의 법을 잘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초보자인 범부들이 그렇게 높은 경지인 무심의 진리를 알 수 있겠는가. 선은 역시 고고한

삼현, 십성 등의 지위를 세워서 단계를 설정한 것은 잠시 동안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영리한 사람이라면 초발심 때에 곧바로 이 무심의 경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불법은 불가사의한 경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문** 견성을 하고 깨달음을 체득하면 그대로가 부처라고 말하고 있지만,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조금도 부처처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부처님처럼 후광도 비추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신통력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범부의는 좀 다른 어떤 기록한 작용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없는 것 같다. 그래도 견성하면 정말로 부처인가.

## 보살 52위 방편... 초발심자도 견성 가능 신통 욕심내면 불제자 아닌 천마외도

### 현대프로덕션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 현대프로덕션의 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현대프로덕션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프로덕션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디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디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 현대프로덕션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 현대프로덕션의 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현대프로덕션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프로덕션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디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디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 법회·행사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프로덕션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대프로덕션 영상사업단

### 현대프로덕션

주소: 서울시 용문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